관계부처합동 | 보도설명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11.23.(월)

교부금 개편안은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지원과 함께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균형 잡힌 투자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보도내용>

□ 2026.11.22.(일) 국민일보는 「초·중·고 지원금까지 미래기금으로...시·도교육청 정산금 11조 못받을 판」 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가서 교육부가 터치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 장악할 해서 교육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동의하겠다.”고 말했고,

○ 민주당 소속 고민정 법안소위위원장은 “‘26년 정산분은 11조원 가량된다. 그런데 현재 교부금법과 기금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26년분이 그냥 통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2025년도 정산 잔여분 923억원도 지급하지 않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정산받지 않은 부분까지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입장>

□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예산 삭감이 아니라**, 교부금의 **안정적 증가**와 **교육분야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및 **우수인재 양성** 등에 **전액 재투자**하여 **교육부문간 균형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대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법안에 **교육·인재분과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교육부 차관**을 **분과위원장**으로 **위촉**해 **교육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현재 미래대응기금법안과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 이번 교부금 개편안은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내국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교부금** × (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 동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되면 즉시 **시행**되므로 **'26년 교부금 정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편된 교부금은 **향후 5년간('26~'30) 당초 중기계획 대비 교부금의 총액 증가율이 더욱 확대**(4.4→6.6%)되는 등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전년 대비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 특히,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경상성장률 전망***에 기초한 교부금 규모를 보면 **'28년부터 연도별**로 **정부안 대비 3.6~11.1조원 높은 수준**이며, 정부안보다 **향후 5년간('26~'30) 총 23.6조원 더 클 것**(**연평균 9.7%**)으로 예상됩니다.

* NABO 성장률 전망: ('26) 22.0% → ('27) 7.3% → ('28) 5.0% → ('29) 4.8% → ('30) 4.6%
※ 한국은행 발표 '26년 분기별 명목GDP 증가율(전년동기비): (26.1분기) 17.1%, (26.2분기) 26.4%

< '25~'29, '26~'30 중기계획상 교부금 전망 비교 >

(단위: 조원)

구 분	'25*	'26*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25~'29 중기계획	72.3	71.7	77.1	81.4	85.9	-	**4.4%**('25~'29)
'26~'30 중기계획	-	71.7	78.9	84.3	90.1	92.7	**6.6%**('26~'30)
NABO 전망		71.7	78.9	87.8	99.1	103.7	**9.7%**('26~'30)

* '25년, '26년 본예산 기준

○ 이와 같은 **교부금 전망**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AI·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 등에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정부는 **교육현장**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책임자	과 장 권삼수 (044-203-6636)
		담당자	사무관 황예슬 (moeseul@korea.kr)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	책임자	과 장 문상호 (044-214-1870)
		담당자	사무관 양성철 (yg1102@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